

사업경력 유무에 따른 사업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김상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오성배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업경력, 즉 사업운영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사업실패경험이 있는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 및 가족기업창업과 관련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사업 및 가족창업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운영경험, 사업실패경험이 많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많았다.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많아 사업자가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었고, 연령이 평균 45세로 비사업자보다 연령이 높았으며,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체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사업실패후처리 평가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사업실패두려움이나 사업실패위험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가족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그리고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사업실패위험에 대해 강하게 인지할수록,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실패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끝으로, 남성,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창업의지가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주제어: 사업경력, 사업운영경험, 사업실패경험, 사업실패위험인지, 가족창업의
욕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ksh@hoseo.edu

I. 서론

소규모창업 또는 가족기업 형태의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여년전 IMF 위기, 최근의 청년실업 및 명예퇴직 증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등 경제적 변화 속에서 여성창업, 소규모창업, 가족기업창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자영업자가 많은 것만 보아도 창업의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가족기업 형태의 창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우리나라 사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5%로 일자리의 1/4을 점유하고 있다(김석웅, 2002).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대부분이 10% 대(일본 14.8%, 스페인 14.4%, 영국 12.7%, 핀란드 11.7%)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Family Firm Institute, 2001).

가족기업은 국가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의 경제를 추진하는 엔진으로 간주 될 수 있다(김석웅, 2002). 서구에서도 가족기업이 그 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모든 등록 기업의 75%내지 95%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의 45% ~ 65%를 가족기업이 차지한다(Lank, 1995). 미국의 경우 모든 기업의 90%가 가족기업이며, 가족기업이 국내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며,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의 1/3이상이 가족기업이다(Ibrahim, Ellis, 1994). 서구에서 가족기업의 활동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모든 기업의 99%가 가족기업이다(Gallo, 1994). 호주의 경우 모든 기업의 75%가 가족기업인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기업이 호주 국내총생산의 50%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호주 노동력의 50%을 고용하며, 소규모기업의 95%가 가족기업이다(Robbins, Wallace, 1995).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에 관한 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Harvard 경영대학원을 비롯한 115개의 기관에서 가족기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포럼, 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Family Firm Institute, 200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가정학분야 학자들그리고 경영학분야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득창출의 대안으로 가족기업의 창업을 선택함으로써 가족기업은 고용창출효과와 노동력 이동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고 그 결과 국가에서도 소규모의 가족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가족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창업자에 대한 연구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경력 관련 특성, 동기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예: Gatewood et al. 1995; Chaganti, 1986; 김선화, 2004; 박대섭, 2004; 이요왕, 2006; 손홍재, 2006; 이선성, 2007; 박기오, 2007; 이윤재, 2007; 이해갑, 2007). 창업과 관련한 또 다른 주제는 창업자와 비창업자의 특성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창업자들은 비창업자와 구분되는 독특한 개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ckhaus, 1982; Brockhaus and Horwitz, 1986; Morris, 1998; Sexton and Bowman, 1986). 또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체로, 개인의 내적통제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지우(2000)의 연구에서는 자기권능감(self-efficacy)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중소규모의 가족창업과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족창업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가족창업자, 가족창업의지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므로 창업준비 중인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과거 사업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잠재적 창업자,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잠재창업자 등 다양한 사업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창업 및 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사업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가족창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과거의 선행연구와 차별될 뿐만 아니라 창업의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개인 특성이나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개인의 과거사업경험이나 사업실패경험이 가족창업 및 관련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온 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경력 특성이 가족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업경력, 즉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지,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 관련 태도나 특성, 가족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사업경력 변수가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실패에 대한 태도, 가족창업에 대한 태도, 가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다. 이때, 사업경력 변수 이외에도 사업 관련 특성 및 가족창업 관련 태도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가족기업 개념 및 관련 연구

최근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가족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업형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IMF사태이후 생계형 가족기업이 증가해 왔다(김석용, 2002).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족기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족기업은 주로 소규모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대기업도 가족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김석용, 2002).

가족기업은 가정특성과 기업특성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비가족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족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Ibrahim, Ellis, 1994). 정영금(2000)은 가족기업을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 이상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이 계승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가족 기능과 기업 기능 간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체로 정의하였다. 홍성희(2000)는 가족기업을 가족구성원에 의해 소유·경영되고, 기업기능과 가족기능이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리더십이 계승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업으로서, 인적 구성 측면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 창업이나 재택기업까지 모두 포괄하기 위해 1인 이상의 가족원으로 구성된 기업으로 정의한 바 있다. 결국 이들의 정의를 통해 가족기업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소는 소유권의 정도, 가족구성원에 의한 경영,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 권한의 세대 간 승계에 대한 잠재성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기업과 비가족 기업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업에 가족구성원이 참여한다는 점과 가족구성원 간에 소유권, 경영권 등과 같은 권한을 이전한다는 점이다.

문숙재, 김지희(1997)는 가족기업경영에서 가족기업의 본질, 가족기업의 가족기능과 기업기능 체계, 가족기업 구성체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가족기업의 본질에서는 가족기업 개념, 가족기업의 양가속성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가족기업의 가족기능과 기업기능 체계에서는 가족기업의 이중 기능, 이중 기능과 가족기업 갈등, 가족기업의 이중 기능 체계 간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본 바 있다. 가족기업의 구성

체계에서는 가족체계, 경영체계, 소유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는 가족기업이 가족기능과 기업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가족원의 활용이나 경제적인 측면, 혹은 공간적 측면에서 자원을 공유하므로 경영학 분야와 가정학 또는 가족자원 관리 분야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정영금, 2000). 김석웅(2002)은 가족기업과 관련한 연구를 기업에 대한 가족의 참여(세대 간의 관계, 자녀간의 경쟁, 족벌주의, 가족유형 등에 관한 연구), 가족기업의 특성(가족기업의 장단점, 직장/가족의 갈등과 부작용), 가족기업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재택기업과 부부사업가 연구)등으로 분류하였다. 남영호(1999)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가족기업의 연구주제를 창업과 가족의 관계, 승계계획, 전략경영, 갈등관리, 문화 및 윤리, 여성 기업가 연구 등으로 나누었다.

Hollander, Elman(1988)은 가족기업 연구의 주요 분야를 5개로 나누었는데, 이는 i)가족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ii)설립자나 소유경영자의 특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이들의 영향, iii)가족기업의 생활주기와 성장모형과 이전기관의 영향 및 가족기업이 이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 iv)가족기업에서 상이한 시스템들과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 교환, 상호작용, v)가족과 기업의 맥락에서 소유경영자 행동의 이해이다.

2.2 창업의 개념과 창업자 및 창업의지 관련연구

창업(entrepreneurship)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려졌다. Dollinger(2002)는 창업을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고 정의내렸다. 양인숙(2005)은 창업을 미래의 이윤을 목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 또는 연구주제는 창업의지(entrepreneurship intention)이다. 창업의지는 기업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창업의지는 신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업자 없이는 창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창업 관련 연구에서 창업자에 대한 특성의 연구는 이 분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Gattner(1990)는 창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자의 성취욕구, 내적 통제소재

(internal locus of control), 위험감수성향 등이 창업자의 대표적 특성으로 연구되어져 왔고, 이들 변수가 창업의지나 창업 관련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사·분석되어왔다. 이 이외에도 창업자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종 창업자의 경력, 심리적 특성, 동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대성(2003)은 훌륭한 창업가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을 통하여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개인적 특성 이외에 사회문화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시사, 강성일(2007)은 창업자에 대한 연구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창업자 개인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예: 신념, 가치 등)에 초점을 둔 연구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벤처기업에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벤처투자자들이 창업자의 특성이나 역할,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투자여부의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변수는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것은 창업자의 인적자본을 중요시하는 접근과 맥락을 같이한다(Sapienza, 1989; Riquelme & Watson, 2002).

한편, 창업자의 특성이나 관련 변수가 창업의지, 창업성과, 기타창업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창업의지와 관련된 개인 특성 중 많이 연구된 변수 중 하나는 창업자 개인의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이다. 내적 통제부위(internal locus of control)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내적으로 통제되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통제되는지가 창업의지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Brockhaus, 1982). 일반적으로 외적 통제, 즉 자신이 하기에 따라 대부분의 일들이 달라진다는 개인의 믿음은 창업과 같은 적극적 행동, 성공적인 기업성과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내적 통제, 즉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위험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창업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실패의 위험이 수반되고 거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맡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창업의지 및 사업관련 행동에 창업자 개인의 통제소재에 영향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많은 선행연구에서(예: Brockhaus, Horwitz, 1986) 외적 통제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창업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주로 사업이나 창업에 대한 태도 변수, 위험인지나 위험감수성향,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다.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시 되어 온 변수 중 하나인 위험인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Mazzarol, Thierry(1999)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위험감수 의지, 불확실성 감수, 자기관리에 대한 요구 등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성취욕구와

창업 간의 관계를 최초로 연구한 McClelland(196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감수자(risk taker)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그는 강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 성향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업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연령의 경우 젊은층이 보다 모험적이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더 높고, 은퇴자와 같은 고 연령층은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은퇴 후 창업 의도는 젊은층에 비해 약할 것이라는 주장과 자영업의 선택은 고 연령층이 근로시장에서 차별이 보다 현저하기 때문에 창업할 의지가 높다는 주장으로 상반되고 있다. 성별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Crant(1996)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근로시장에서 남성보다 취업기회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도 창업을 설명하는 인적자본 요소로 강조되어 왔으나 그 영향력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Lee, Venkataraman, 2001).

2.3 창업동기 및 태도

창업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또 다른 주제는 창업에 대한 동기나 태도이다. 동기나 태도는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창업동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창업을 하게 되는 요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과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밀어내는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는 창업이 경기가 나쁠 때, 실업이 많을 때, 사람들은 창업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Moore(1990)는 창업자들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다고 하였다. 불안한 직장생활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Buttner & Moore, 1997).

우리나라 창업시장도 자기개발이나 성취욕구를 이루기 위한 고능력자 그룹과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되기 힘들어 선택의 여지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저능력자 그룹으로 이원화되어 나타나고 있다(전병유, 2003). 실제로 연령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아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비자발적으로 창업을 선택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금재호, 조준모, 2000). Dennis(1996)의 연구는 밀어내기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불황기 때 자영업은 훨씬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고, 같은 맥락의 연구들(Acs, Audretsch, Evans, 1991;

Alba-Ramirez, 1994)에서도 실업률이 확산될수록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임금근로자보다 실업자가 창업주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끌어들이기 가설(Prosperity hypothesis), 즉 경기가 좋을 때 자영업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예: Blanchflower & Oswald, 1998)의 견해로써 실업률과 창업률은 상관관계가 없거나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창업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진출할 확률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끌어내기 가설의 전제조건은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들의 능력은 탁월하며, 탁월한 능력은 위험감수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감이 많이 형성된 사람들 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전병유, 2003). 즉 끌어들이기 가설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실업률에 의하여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욕구정도와 시장기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Lee, Venkataraman(2001)은 창업동기는 야망과 시장기회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4 사업 관련 특성과 창업 및 사업 관련 이슈

사업의욕,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경험, 사업실패경험, 사업성과 등의 변수가 여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 또는 관련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다만, 이들 변수가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이해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성에 대한 주요 이슈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자.

Schein(1978)은 사업의욕이란 현재 사업 중인 기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McClelland(1971)은 성취욕을 기업가의 핵심요소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창업에 대한 태도나 의지에 성취욕이나 사업의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규수(2008)는 사업의욕을 창업의지와 마찬가지로 의도적(계획적) 행동모델을 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인간은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동의 수행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하규수(2008)의 연구를 통해 사업의욕,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경험, 사업실패경험 등은 창업이나 사업계속여부 즉 사업의욕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이나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기업가정신이나 기업성과에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서정해(2006)는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의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의식 비교연구에서 창업자배출과 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i) 기업가적 성향,

ii) 기업가평가/직업관, iii) 제도와 정책(창업생태계와 창업 관련 교육 및 지원 제도)으로 나눈 바 있다. 이때,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모험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추진력, 도전정신, 결단력, 실패에 대한 인내력 등 다양한 요소라고 하였다. 창업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인으로는 창업의 경험, 학력 및 지식, 가정환경 등이라고 하였다.

이 분야 연구에서 또 다른 관심영역은 사업이나 창업성과에 대한 연구이다. Stuart, Abetti(1987)는 사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 경력 및 경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이나 창업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사업이나 창업의 성공요인을 사업자 또는 창업자의 개인 특성, 기업 차원의 특성, 사업가 자질 특성에서 찾고 있다(Hofer, Sandberg, 1987; Covin & Slevin, 1990). 이 중 성공적인 사업(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높은 성취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Begley, Boyd, 1987).

반면, 사업(창업)실패 연구도 계속되어 왔는데, 중소 규모 창업기업의 27.6%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3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53.6%가 도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창업 이후에 도산이나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하규수, 2008). 하규수, 한정화(2010)는 사업가의 사업실패 스트레스와 사업의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실패 경험 있는 사람이 사업중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업의욕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2009)은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의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이나 창업은 상당한 비용손실과 위험부담을 요구하므로 사업경험, 특히 실패경험은 창업의지나 사업유지의사 또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기업가의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는 향후 사업이나 창업 관련 의사결정이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라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및 분석

3.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만 20세이상 남녀로써,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사대상자는 설문조사 당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8월 1일

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질문, 문장오류 등을 보완하여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 후 최종설문지를 가지고 2008년 9월 한 달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설문조사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표집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IT벤처기업협회, 창업보육센터, 창업대학원, 대덕테크노파크 등의 업무담당자 협조를 받아 사업자에게 설문조사지를 배포하였다. 부실기재 및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622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업경력에 따라 사업 및 가족창업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사업경력에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업경력에 따라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후 처리에 대한 평가, 창업에 대한 태도, 가족창업의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셋째, 사업경력 변수가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실패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태도, 가족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다. 이때, 사업 관련 특성 및 가족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업경력 변수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3.3 측정방법

조사대상자의 사업 및 창업 관련 태도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사업에 대한 태도는 사업에 대한 호의적(긍정적) 또는 비호의적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2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개 질문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계수인 Cronbach 알파 값은 .69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5개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5로 밝혀졌다. 사업실패 후 남은 자산 등에 대한 정리 또는 처리시스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태도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5개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내적 일치도는 .85로 밝혀졌다.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는 3개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5로 밝혀졌다.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5점 척도에서 거의 4점에 가까울 정도로 사업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업에 대한 태도는 취업대안으로서 창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였는데, 2개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51로 밝혀졌다. 가족창업의지에 대해서는 3개 문항, 5점 척도로 조사한 바, 3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7로 나타났다.

<표 1> 사업 및 가족창업에 대한 태도 관련 변수 측정문항 및 내적 일치도

구분	문항 내용	평균	신뢰 계수
사업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매력적이다. ·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3.36 2.73	.69
사업실패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사업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술 또는 담배가 늘었다. ·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 항상 사업이 실패할까 봐 조마조마하다. · 사업 강박감 때문에 휴가나 자유 시간을 가진 적이 별로 없다. 	2.61 2.83 2.87 2.74 3.12.	.85
사업실패 처리시스템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패한 기업의 자산의 인수·합병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 실패한 기업보유 유무형 자산을 매각하는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 실패한 기업을 처리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실패한 기업에게 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다. · 실패한 기업을 정리하는 절차가 간편하다. 	2.35 2.35 2.21 2.39 2.23	.85
사업실패 위험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패시 기업가의 손실은 자신의 투자자금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 사업실패시 기업가의 가족들도 금전손실을 볼 것이다. · 사업실패시 기업가의 손실은 재물손실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3.88 3.46 3.94	.75
창업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하기 어려워 창업을 한다. · 안정된 일자리가 많으면 창업하지 않는다. 	3.41 3.67	.51
가족창업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소규모 가족창업을 하고 싶다. · 나는 향후 5년 이내에 소규모 창업하겠다. · 사업이 많은 위험이 있다 해도 나는 소규모로 가족창업하고 싶다. 	3.36 2.79 3.01	.87

3.4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WIN(ver 1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업 및 가족창업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였다. 또한, 과거 사업경험여부, 사업실패경험여부, 설문조사 당시 사업운영여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업 관련 특성, 가족창업 관련 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카이검증(χ^2)과 t검증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사업경력, 즉 과거 사업경험여부, 사업실패경험여부, 사업운영여부가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실패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IV.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성별	여성	146 (23.5%)	사업운영여부	비사업중	405 (65.1%)
	남성	475 (76.4%)		사업중	217 (34.9%)
교육	고졸이하	44 (7.1%)	부모 창업경험	창업경험없음	120 (20.4%)
	대졸	419 (68.0%)		기업임원	61 (10.3%)
	대학원이상	153 (24.8%)		창업경험있음	406 (69.1%)
연령 (M=38.24 S.D.=11.72)	18-29세	189 (30.4%)	창업목표	경제적 성공	257 (46.4%)
	30-39세	133 (21.4%)		자아실현	201 (36.3%)
	40-49세	182 (29.3%)		대안이 없어서	22 (3.9%)
	50세 이상	116 (18.7%)		생존	73 (13.2%)
과거 사업경험	없음	371 (59.6%)	과거 사업실패경험	없음	510 (81.9%)
	있음	251 (40.3%)		있음	112 (18.0%)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사업태도(2개)	6.35	1.91	사업실패위험(3개)	11.70	2.18
사업실패태도 (5개)	14.16	4.56	사업실패후처리 시스템 태도(5개)	11.54	3.12
취업대안창업 태도(2개)	7.09	1.63	가족창업의지(3개)	9.85	3.31

참고: 결측치로 인해 표본수 합에 차이가 있으며 반올림으로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76%는 남성이었고 나머지 24%는 여성이었다. 조사당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비사업자는 405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65%,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217명으로 전체조사대상자의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7%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졸자의 경우 419명으로 전체의 68%,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25%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창업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부모가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120명으로 전체의 20%, 창업경험은 없으나 기업의 임원경력이 있는 경우는 약 10%,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6명, 즉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38세였으며, 30세미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30%(189명), 30대가 21%, 40대가 29%, 50세 이상이 19%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0%인 371명,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40%인 251명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할 경우 창업목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대략 절반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창업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약 1/3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사업실패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18%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2%는 과거 사업실패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 6.35(10점 만점)로 사업에 대해 중간점수인 5점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은 평균 11.70으로 5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점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5개 질문, 25점 만점에 평균 14.16으로 중간 점수인 1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려움 정도가 중간 점수보다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처리시스템, 즉 사업이 실패할 경우 자산 매각이나 파산 및 실패 후 뒤처리 시스템에 대한 태도는 25점 만점에 평균 11.54로서 중간점수인 15점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실패후 처리시스템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창업태도에서는 2개 질문,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7.09로 중간점수인 6점에 비해 높은 수준, 즉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소규모 가족창업의지에 대해 3개 질문, 5점 척도로써 조사한 결과 평균은 9.85로서 중간점수인 9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창업에 대한 의지가 중간 점수 수준으로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2 사업경력에 따른 사업 및 창업 관련 태도의 차이

사업경력, 즉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 및 창업 관련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제곱(χ^2) 검증과 t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3>, <표4>, <표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3> 과거 사업경력에 따른 사업 및 창업 관련 특성의 차이 검증

변수	과거 사업경력여부(빈도, %)		
	없음(N=371)	있음(N=251)	카이
성별 여성	107 (17.3%)	38 (6.2%)	15.0***
남성	263 (42.6%)	209 (33.9%)	
교육 고졸	21 (3.4%)	23 (3.8%)	34.3***
대졸	281 (45.9%)	135 (22.1%)	
대학원	63 (10.3%)	89 (14.5%)	
부모 없음	69 (11.8%)	51 (8.7%)	9.6**
창업 임원	48 (8.2%)	13 (2.2%)	
경험 창업	236 (40.3%)	168 (28.7%)	
변수	없음	있음	t 값
연령	33.3	45.3	-15.0***
사업태도(2개)	6.0	6.9	-5.6***
사업실패두려움(5개)	14.7	14.0	.6
사업실패후 처리(5개)	12.2	10.5	6.9***
사업실패위험인지(3개)	11.3	12.1	-4.4***
취업대안창업태도(2개)	7.1	7.0	.5
가족창업의지(3개)	9.08	11.22	-7.76***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먼저 과거에 사업운영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과 창업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과 창업 관련 태도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녀 모두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 그 비중이 남성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업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절대적 수치로 볼 때는 과거 사업경험이 없으면서 대졸자인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46%로 가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 한 것은 과거 기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14.5%로서 사업운영경험이 없는 경우의 10.3%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원졸업의 고학력자가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인의 과거 사업운영경험여부에 따른 부모의 창업경험여부의 차이를 비율로 살펴볼 때 전체적인 부모와 본인이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40.3% 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과거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때 부모가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168명으로 부모가 창업경험이 없는 51명보다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창업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예:전병유, 2003, Lordkipanidze et al., 2005) 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과거 사업운영경험여부에 따른 사업 및 창업 관련 태도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여러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3세이나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사업 운영 경험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업에 대한 태도, 즉 사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성향의 경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6.9로서 경험이 없는 사람의 6.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특성과 달리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과거 사업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실패후처리 평가에 대한 태도는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경험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실패후 자산매

각 및 파산 등 각종 사업실패후 처리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실패위험에 대한 태도에서는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평균 12.1(15점 만점)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아 사업실패의 위험성에 대해 더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대안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과거 사업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족창업 의욕의 경우 과거 사업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창업에 대한 의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부모가 창업경험이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창업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과 창업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표4> 사업실패경험여부에 따른 사업 및 창업 관련 특성의 차이 검증

변수	과거 사업 실패경험여부(빈도, %)			카이
	없음(N=510)	있음(N=112)		
성별 여성	129 (20.9%)	16 (2.6%)	6.2*	
남성	377 (61.1%)	95 (15.4%)		
교육 고졸	32 (5.2%)	12 (2.0%)	6.0*	
대졸	351 (57.4%)	65 (10.6%)		
대학원	118 (19.3%)	34 (5.6%)		
부모 없음	99 (16.9%)	77 (13.2%)	2.0	
경영 임원	54 (9.2%)	21 (3.6%)		
경험 창업	327 (55.9%)	7 (1.2%)		
변수	없음	있음	t 값	
연령	36.5	45.3	-8.9***	
사업 태도(2개)	6.2	6.8	-2.6**	
사업실패두려움(5개)	13.5	15.2	-2.5*	
사업실패후처리(5개)	11.8	10.4	4.2***	
사업실패위험인지(3개)	11.5	12.2	-3.0**	
취업대안창업태도(2개)	7.1	7.0	.3	
가족창업의지(3개)	9.64	10.79	-3.15**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 남성의 비율은 여성보다 약 3배(20.9%에 비해 61.1%가 약 3배)이나,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7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할 때 대졸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약 2배, 고졸자 보다는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업실패 경험자의 대부분은 대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t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실패경험없는 사람들 보다 약 10살 정도 많은 45세로 나타났다. 과거 사업실패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업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사업실패후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실패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업실패위험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업실패 경험은 여러 사업관련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패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가족창업의욕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해 과거 사업경험이 실패로 끝났는지의 결과와 상관없이 qs인과 부모의 창업이나 사업경험은 또 다른 창업의지를 불러일으킴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지의 여부에 따라 창업 및 사업 관련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5>에 제시하였다.

<표5> 현재 사업운영여부에 따른 사업 및 창업 관련 특성의 차이 검증

변수	현재 사업운영여부(빈도, %)		
	없음(N=217)	있음(N=405)	카이
성별			
여성	109 (17.7%)	36 (5.8%)	8.1**
남성	294 (47.6%)	178 (28.8%)	
교육			
고졸	22 (3.6%)	22 (3.6%)	23.1***
대졸	297 (48.5%)	119 (19.4%)	
대학원	79 (12.9%)	73 (11.9%)	
부모			
없음	80 (13.7%)	40 (6.8%)	10.6**
창업 기업임원	51 (8.7%)	10 (1.7%)	
경험 있음	252 (43.1%)	152 (26.0%)	
변수	없음	있음	t 값
연령	34.2	45.5	-14.1***

사업태도(2개)	6.0	6.9	-5.1***
사업실패두려움(5개)	15.5	13.8	1.9
사업실패후처리(5개)	12.0	10.5	6.0***
사업실패위험인지(3개)	11.4	12.1	-3.8***
취업대안창업태도(2개)	7.1	7.0	.6
가족창업의지(3개)	9.17	11.44	-7.88***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남성(178명)일 가능성이 여성(36명)보다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남성의 비중(294명)이 여성(109명)보다 약 3배이하 임을 알 수 있어 앞서의 사업운영자의 남녀 비율(남성 5배)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남성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성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대학원졸업의 고학력자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업운영중인 사람들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가 73명, 대학졸업자가 119명인데 비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대학원졸업자 79명, 대학졸업자 297명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학원졸업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창업경험여부에서도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가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2명으로 부모가 창업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40명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비중은 현재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모가 창업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t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45세로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인 34세보다 10살이상 나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사업실패후 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사업실패위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대안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강한 가족창업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3 사업경력이 사업 관련 특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의 성향에 사업경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표6> 사업경력이 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남성=1)	.68***	.15
연령	-.04	-.02
대졸여부(대졸=1)	.27	.03
부모창업(경험=1)	.21	.04
사업실패위험인지(3개)	-.02	-.02
사업경력	-.18	-.04
현 사업운영여부	1.19**	.29
사업실패경험여부	-.19	-.03
상수	5.58****	
F값	6.41***	
R^2	.08	
adjusted R^2	.07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회귀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사업경험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경력 변수 중 현재 사업운영여부 변수와 사업실패경험여부는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 변수도 사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표7> 사업경력이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남성=1)	1.85*	.14
연령	-.21	-.04
대졸여부(대졸=1)	-.09	-.00
부모창업(경험=1)	.70	.06
사업실패위험인지(3개)	.36*	.17
사업경력	-1.19	-.08
현 사업운영여부	-1.49	-.09
사업경험여부	1.75**	.18
상수	10.56***	
F값	3.11***	
R^2	.11	
adjusted R^2	.07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표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 사업실패경험여부로 드러났다. 성별, 사업경험여부, 사업실패경험여부 변수가 사업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사업실패에 대해 더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가 강한 경우 그리고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4.4 사업경력이 창업 관련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 회귀분석

취업대안으로서 창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8> 사업경력이 취업대안창업에 대한 태도 미치는 영향력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남성=1)	-.20	-.05
연령	.28***	.18
대졸여부(대졸=1)	.09	.01
부모창업(경험=1)	-.09	-.02
사업실패위험인지(3개)	.05	.07
사업경력 현 사업운영여부	-.37	-.10
사업경험여부	.03	.00
사업실패경험여부	-.15	-.03
상수	6.05***	
F값	2.73***	
R^2	.03	
adjusted R^2	.02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회귀분석 결과는 <표8>에 제시하였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대안으로서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나 사업경력 관련 변수 어떤 것도 취업대안으로서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업경력이 가족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가족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9>에 제시하였다.

<표9> 사업경력이 가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남성=1)	1.19***	.15
연령	.06	.02
대졸여부(대졸=1)	.23	.01
부모창업(경험=1)	1.08***	.13
사업실패위험인지(3개)	-.07	-.04
사업경력	.76	.10
현 사업운영여부	1.57*	.22
사업실패경험여부	-.35	-.04
상수	8.50***	
F값	11.90***	
R^2	.15	
adjusted R^2	.14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괄호안 개수는 5점척도, 질문의 개수를 의미함.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부모의 창업경험여부, 과거 사업운영경험여부 변수가 가족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사대상자가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소규모 가족창업의사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업경력, 즉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 및 가족창업 관련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경력 변수가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실패위험에 대한 인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인지, 취업대안창업에 대한 태도, 가족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운영경험이 많았고,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았다. 또한, 과거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45세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10살 정도 나이가 많았으며, 사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실패후처리 평가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업실패의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가족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과거 사업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실패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약 10살 정도 많은 45세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며, 사업실패후 처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수준이 높았고, 가족창업의욕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운영자가 비사업자보다 대학원졸업의 고학력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부모가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45세로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비사업자들의 평균 연령보다 약 10살이 많았다. 또한 사업운영자들은 비사업자와 비교할 때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실패후 처리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사업실패위험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가족창업의욕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사업경력이 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경력 변수 중 현재 사업운영여부와 사업실패경험여부 그리고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 변수는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사업경력이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업실패위험에 대해 강하게 인지할수록,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실패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

나 사업경력은 취업대안창업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사업경력이 가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창업의지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 및 사업 관련 정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일차적으로 창업의욕이 낮은 사람들, 예를 들면, 여성, 부모나 자신이 과거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잠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들이 왜 창업의욕이 낮은지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동안의 창업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효과적인 창업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사업실패후 처리에 대해 긍정적이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향이 바로 창업의욕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각종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이나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막연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낮고, 사업실패후 발생하는 사후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욕이 낮은 점을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과거 사업운영경험이 있거나 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창업에 대한 의지는 아직도 높으나 사업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해 사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사업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사업실패후의 처리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장기적으로 향후 사회전반에 걸쳐 사업이나 기업운영에 적절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남은 자산의 처리, 파산 관련 정리절차 등에서도 실패자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차원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업경력이 새로운 창업을 촉진시키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을 수 있는 사회 전체적 차원의 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잠재창업자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사업경력의 개념을 사업 및 가족창업 관련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주제 면에서도 독창성을 갖았다고 사료된다. 창업이 확대되고 있고, 사업의 효

유효적 성과를 위해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양한 주제와 연구 방법, 창업과 사업 관련 실질적인 조사·분석, 창업 및 사업 관련 정책이나 사회적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금재호, 조준모(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석웅(2002), 가족기업의 연구현황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24(1), pp.187-213.
- 김선화(2004), 실업 유경험 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유형 분석, 경기대 행정대학원,
- 남영호(1999), 기업가정신과 가족기업: 연구영역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1), pp.3-29.
- 문숙재, 김지희(1997), 가족기업(Family Business)경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한가정학회지, 35(6), pp.317-334.
- 박기오(2007), 창업 전·후의 소규모 외식업체 성공요인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차이 연구.세종대 관광대학원, pp.17-41.
- 박대섭(2004), 한국 외식 창업자의 특성과 자질이 창업 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서비스경영학회지, 7(1), pp.201-222.
- 박시사, 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31(2), pp.187-204.
- 서정해(2006),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중일 대학생의 인식, 경영교육논총, 43(1), pp.153-171.
- 손홍재(2006),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 경영대학원, pp.5-77.
- 양인숙(2005), 여성창업의 성공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지, 3, pp.131-147.
- 이선성(2007), 소상공 창업의 성공요인과 창업자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대 경영대학원, pp.13-39.
- 이요왕(2006),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동의대 경영대학원, 4(1), pp.1-22.
- 이운재(2007), 창업보육기업의 기업가 특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pp.12-58.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22(1), pp.121-146.
- 이해갑(2007),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적 연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pp.10-17.
- 장대성(2003), 한국과 미국의 창업 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창업 교육 전략수립,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8(1), pp.129-139.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 1:129-140.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6(9), pp.149-179.
- 정영금(2000), 가족기업연구의 활용성과 전개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pp.1-12.
- 하규수(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규수, 한정화(2010), 기업가의 사업실패스트레스와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학회, 32(1), pp.21-41.
-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2009), 잠재적 창업가의 사업실패 부담감과 환경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경영학 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
- 홍성희(2000), 가족기업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의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38(9), pp.19-32.
- Acs, Z.D., Audretsch, F., & Evans, D.(1994), Why does the self-employment rate vary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871.
- Alba-Ramirez(1994), Self-employment in the midst of unemployment: The case of Spain and the United States. *Applied Economics*, London 26(3), pp.189-201.
- Begley T.M., Boyd, D.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pp.79-93.
- Blanchflower, David G. & Oswald Andrew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6, pp.26-60.
- Brockhaus, R. H.(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C. Kent, D. Sexton, and K.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Brockhaus, R. H. and Horwitz, P. S.(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D. L. Sexton &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pp.25-48. Cambridge, MA: Ballinger.
- Buttner. E.H., & Moore, D. P.(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Business Management*. 35(1), pp.34-46.
- Chaganti, R.(1986), Management in women-owned enterprises. *Journal of*

- Small Business Management*. 24(4), pp.18-29.
-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pp.75-87.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pp.42-49.
- Dennis, W.(1996), Self-employ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17(4), pp.645-661.
- Dollinger, M. J.(2002),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3rd(ed), Prentice-Hall.
- Evans, J. S.(1991), Strategic Flexibility for High Technology Maneuvers: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8(1), pp.69-89.
- Family Firm Institute(2001), Yellow pages: A Resource guide for family business advisors, educators, researchers, and consultants. Boston, M.A.: Family Firm Institute.
- Gallo M. A.(1994), Global Perspectives on Family Business. Chicago: Loyola University, Family Business Center.
- Gartner WB(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Venturing*, 5:15-28.
- Gatewood, E.J., Shaver, K.G., & Gartner, W. B.(1995), A longitudinal study of 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start-up behaviors and success at venture cre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 pp.371-391.
- Hofer C. W., Sandberg W. R.(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pp.31-50.
- Ibrahim, A.B. & W.H. Ellis(1994), Family Business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 Dubuque, IO: Kendall/Hunt Publishing.
- Lank, A.G.(1995). Key Challenges Facing Family Enterprises. Lausanne, Switzerland: IMD Publication.
- Lee, J. & Venkataraman, S.(2001), Aspiration level, labor market evaluation, and the decis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Academy Management, II, Chicago.

- Mazzarol, T., & Thiery, V. D.(1999), Noelle and Thein Vicki,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 pp.48-64.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 Moore, D.P. (1990), An examination of present research on the female entrepreneur-suggested research strategies for the 1990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 pp.275-281.
- Morris, M. H. (1998), *Entrepreneurial intensity*. Westport, Conn: Quorum Books.
- Riquelme, H. & J. Watson(2002), Do Venture Capitalists' Implicit Theories on New Business Success/Failure Have Empirical Valid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Vol. 20, pp.393-416.
- Robbins, B. & D. Wallace(1995), *The Family Business: how to successfully manage a family business*. Melbourne: The Business Library.
- Rotter, J. B. (199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locus of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Whole No. 609, pp.1-28.
- Sapienza, Harry J. & Jeffrey A.(1989), The Roles of Venture Capitalists in New Ventures: What Determines Their Importance?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pp.74-78.
- Schein, E. H. (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Reading, Mass., Addison-Wesley.
- Sexton, D. L., & Bowman, N. B. (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 and business students. In R. Ronstadt, J. A. Hornaday, R. Peterson and K. H.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40-51.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Stuart, R. W. & Abetti, P. A.(1987), Start-up Venture: Toward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pp.215-230.